

종합·해설



4·11 총선 표밭은 지금

■ 광주 서구를

아파트 밀집 점진적 변화 촉각

Table with 9 columns: Party, Name, Age, Position, Party, Name, Age, Position, Party, Name, Age, Position. Lists candidates for the 4.11 general election in Gwangju Seogu.

※ 후보는 가나다 순

광주 서구 을 선거구는 풍암·금호·화정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인구 중 상당수가 젊은 층이어서 표심의 변화가 빠른 곳이다.

5선 관록 김영진에 후보 8명 도전장 6인의 통합민주 후보 공천경쟁 치열 이정현·오병운·정남준 표밭같이 분주

현재 서구 을 선거구는 5선인 김영진 의원의 텃밭에 8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광주지역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의원과 김성숙 전 광주시의원, 김이강 국제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이사장, 서대석 전 청와대 비서관, 이상갑 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채일병 전 광주발전연구원장 등 6명이 한 장의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으로 밀바닥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제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강세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구 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고작 720표 득표에 머물렀지만, 18대 국회에서 '지역 예산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지역 공무원과 지역민 사이에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에서 한나라당 후보로는 최근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3위를 오르내리며, 민주당합 후보들을 위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17대·18대 총선에 연이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각각 10%와 17.71%의 득표율을 올려 지지기반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특히 서구 을 지역이 가야자동차,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통합진보당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찌감치 무소속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정남준 후보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새 인물론'을 내세우며 바닥을 다지고 있다. 정 후보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정부 혁신본부장 등 29년간의 공직생활동안 '공명정대'의 신조를 지켜며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1 총선 현장

조영택, 서구 갑 재선 출마 선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26일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 갑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여년 간 정부에 봉직했던 국정운영의 경험과 민주당부 10년간 고위공직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서민복지정책을 추구했던 소중한 기억을 토대로 민주당부 수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후보 정책 토론회 제안

이병훈 민주당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6일 동구청 관공선거는란과 관련, "광주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후보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태의연한 관공선거 의혹을 빌미삼아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호남의 정치 1번지, 호남의 경제 중심지 '불거친 침' '죽어가는 도시'가 되는 상황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동구를 살릴 정책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민생정책 투어 시작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 을) 의원이 26일 민생정책 투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갔다. 전남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의원은 이날 첫 민생정책 투어로 광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장애에 관련 보장구 산업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대·중기 상생법 개정"을

김경진 민주당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2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는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중소기업청이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가 적법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 대기업 등이 이미 진출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이양토록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광산 을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6일 4·11 총선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서 여기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적으로 향인 광산에서 19대 총선에 다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일자리·주거·교육(보육)·노후·안보 등 국민의 5대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진,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동신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권한진 나주청년회의소 내부회장이 26일 민주당청년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권 부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된 현실에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분노와 고통에 울부짖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젊은 토종 정치 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시·도당-지역위원장 사퇴 논란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 "경선과정 개입 우려" 불만

4월 총선 경선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광주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유지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광주 최경주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26일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사퇴시키고 경선을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역대 총선에서는 90일 가량 앞두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사퇴했다"며 "과거보다 개혁적이야 할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기존 정치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 민주당 정계특위에서는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지난 연말이나 1월 말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통합의 소송용이에 휩쓸리면서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광주 시·도당위원장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까지, 지역위원장은 공천 신청 때까지 자리가 유지된다. 현재 광주 북구 을에서는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이 최경주, 최희경, 임내현 후보와 경쟁하고 있으며, 이낙연 전남도당위원장은 영광·장성·함평 지역에서 이석형 후보와 치열한 경쟁전을 치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eongjeong Jo' (Seongjeong Jo) featuring a photo and text about his qualifications and achievements.

Advertisement for 'Hangeul/Hanwen Instructor Qualification' (漢字·漢文指導師資格) with details on course structure and fees.

Advertisement for 'National/Local Government Hanmun지도사자격'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for continuing education.

Advertisement for 'Nongseongdong Leaders' (농성동 리더스하이) real estate project, including floor plan,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